

사회자본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은주** | 성균관대학교

이숙종*** |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신뢰, 네트워크, 호혜로 대표되는 사회자본이 집회나 시위와 같은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SNS 이용의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와의 상관관계에서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신뢰, 소속집단 네트워크, 호혜규범은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소속집단 네트워크의 경우 정치참여 행위에 SNS이용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은 집회나 시위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동호회나 친목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은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참여 행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SNS는 상호작용을 더 원활하게 하고, 시간간의 제약 없는 토론은 물론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정치참여 행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과 같은 호혜규범 역시 정치참여와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성의 태도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향후 다년도 분석과 함께 정보편향이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추가된다면 보다 SNS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치참여 행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사회자본, 정부신뢰, 네트워크, 호혜규범, 정치참여, SNS 이용

*본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RF-2016S1A3A2924832).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퍼트남(Putnam 2000)은 사회자본은 ‘개인이익’인 동시에 ‘공적이익’이라는 점을 들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지역의 범죄율 감소에 기여한다는 사례를 든 바 있다. 즉 사회자본이 지역사회의 연결과 참여를 촉진하여 공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과 시민참여의 인과성을 언급하면서 사회자본의 형성이 시민성 및 시민공동체 형성을 촉진하여 시민참여를 제고시키고 이는 다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선순환이 나타난다고 보았다(Putnam 2000). 즉, 사회자본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연대감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참여나 정치 참여행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참여는 다시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송경재 2017). 시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 행위는 신뢰, 상호 호혜,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윤종빈·김소정 2019).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의 관계에 주목한 다른 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적 자본이 제도적·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자본은 제도적 참여인 투표에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제도적 참여인 시위 참여 등은 정부 신뢰 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송경재 2013). 또 다른 연구는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선거에 적극적인 반면 정부신뢰가 낮을수록 정당이나 집회·시위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숙종·유희정 2010).

한편 사회자본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 증가와 함께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송경재 2017). 전통적으로 사회자본이 면대면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와 공동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발전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규범(호혜)과 같은 사회자본 축적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개인의 온라인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을 강화한다는 논의(Wellman 2001)는 물론 사회자본을 쇠퇴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사회자본을 강화한다는 입장은 개인의 갈등이나 이해관계 조절, 공동체 형성에 온라

인이 기여한다는 논리를 갖는다. 거래비용의 감소는 물론 지역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결사체 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에 대한 참여행위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참여의 장벽이 높은 집회나 시위 참가와 같은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대한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최근 이용자 수가 증가한 소셜 네트워크의 이용이 오프라인에서의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사회자본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작동할 것으로 인식하여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1) 정치참여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동(이숙종·유희정 2010)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정치참여가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라는 점이다. 정치참여는 매우 포괄적인 정치활동을 의미하며, 그 외연 또한 광범위하다. 정치참여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먼저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의 경우 “공직자의 선출이나 이들의 행위에 일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하는 일반 시민들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의 선출이나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진행되는 시민들의 합법적 행동(Verba et al. 1978)”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보다 광의적인 입장에서는 불법적 정치활동 역시 정치참여에 포괄한다(Barnes, Kaase et al. 1979; Huntington and Nelson 1976). 헌팅턴과 넬슨(Huntington and Nelson 1976)에 의하면 정치참여를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된 일반시민들의 행위”이며, 그것이 실제 효과를 발휘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참여라고 인식한다.

정치 참여의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연구 또한 다양하다. 관습적(conventional) 참여와 비관습적(unconventional) 참여로 구분하는 경우(Barnes, Kaase et

al. 1979) 관습적 참여는 투표, 집회참여 등을 말하며, 비관습적 참여는 상대적으로 비제도적인 세금납부 거부, 점거, 파손 등의 행위를 말한다. 물리(Muller 1982)는 합법참여와 비합법 참여로 구분하는데, 합법참여를 다시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로 구분하고 있다. 비합법 참여의 경우 불법종이나 폭력행위 등을 말한다. 최창호(1996)의 경우 유사하게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한다. 제도적 참여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정치 참여, 즉 선거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민참여행정을 의미하며, 비제도적 참여는 합법이나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운동의 형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정치 참여 유형의 분류는 연구자의 관심이나 제도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다.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행위를 특성에 따라 투표, 선거운동, 접촉, 조직활동 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헌팅턴과 넬슨(Huntington and Nelson 1976)의 경우 선거운동, 로비활동, 조직활동, 접촉, 폭력 등의 5가지 형태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치참여 유형별 분류 중 가장 많은 선행연구가 채택하는 것은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의 구분이다. 제도적 참여란 절차나 법률 등에 의해 규정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참여행위를 말한다. 위원회나 청문회와 같은 제도를 비롯하여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제도적 참여는 집회나 시위 등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정책전환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제도적 참여는 정부의 의사나 주도 하에 이루어지지만 비제도적 참여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나 의견에 따라 형성된다.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각의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역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자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자본은 대체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치참여의 경우 통상적 참여, 관습적 참여, 제도적 참여와 그렇지 않은 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가 다수이지만 일반적으로 정치 참여에서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참여를 규범적 행동으로 인해 참여도가 높은 제도적 정치참여보다 비제도적 참여의 형태인 집회, 시위 등으로 인식하고 사회자본과의 상관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과 규범으로 대표되는 사회자본이 일반적으로 규범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공식적·제도적

정치참여보다 비용이 높은 비제도적 참여의 장벽을 낮추기 때문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행위에 비해 적극적 행동이면서도 비제도적 정치참여행위에 속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행위에 신뢰, 호혜, 네트워크가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집회나 시위와 같은 행위의 상관관계를 비롯하여 온라인 활동의 매개역할을 탐색하는데 비제도적 참여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보았다.

2) 신뢰와 정치참여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다양한 형태의 참여는 단순히 행정이나 정책과정에 이들이 참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민들이 공공문제나 사회문제에 의견을 표출하거나 집단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사회자본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김민정·박성민 2013). 전통적으로 사회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형성되면서 시민들의 공공문제 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면서 풍부한 사회자본은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고 연구되어 왔다(송경재 2013; Paxton 1999; Putnam 2000). 특히 사회자본 축적은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증가시키고, 다시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순환의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Diamond 1999; 송경재 2013).

오스트롬과 안(Ostrom and Ahn 2003)의 경우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집합적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회자본을 언급하고 있다. 역시 사회자본을 제도(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설명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은 시민들의 정치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유민이 외 2012). 때문에 세계은행이나 OECD는 국가의 사회자본 축적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한다고 기대한다(송경재 2013). 다양한 사회적 조직의 참여는 개인의 정치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참여로 이어지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Verba et al. 1995).

사회자본의 구분 역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신뢰’이다. 신뢰 역시 일반신뢰, 사회신뢰, 정부신뢰, 정치신뢰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뢰는 “상대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기반한 심리적 상태”(Rousseau et al. 1998), “행위자가 자신의 통제 밖의 행위자에 대해 특정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Deutsch 1958, 266), 혹은 “행위

자가 타 행위자를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 행위자 혹은 집단이 특정 행위를 할 것이라 판단하는 주관적 확률”(Gambetta 1998)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는 개인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기회와 정보를 획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정책수용의 증대 및 사회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신뢰 역시 사회자본의 형태로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와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에서 신뢰는 공적신뢰와 사적신뢰로 구분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정부신뢰 단일로 분석한 연구도 적지 않았다. 다양한 연구들이 사회자본의 주요한 요소로서 공적 신뢰인 정부신뢰는 정부의 성과를 증대하고(Cusack 1997), 정치적 책임을 강화한다(Kim 2005)고 주장하면서 사회의 복지향상(Fukuyama 1995),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 증대(Hetherington 1998) 등에 기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신뢰 역시 정치기구, 정부, 국가 혹은 정치체제 등에 대한 상태나 행위, 역할 등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의미한다(류태건 2011). 정부신뢰와 정치참여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는 물론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장수찬(2002)은 한국에서 정치 참여가 높고 활발한 사람일수록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알몬드와 버바(Almond and Verba 1965)의 경우 정치참여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체제와 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김대욱·이승중(2008)은 정부신뢰는 투표와 같은 제도적 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분석하였으나, 비제도적 참여의 하나인 집회나 시위와는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혜인·홍준형(2013)의 경우 통상적 정부신뢰와 정치참여 및 비통상적 정치참여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통상적 정치참여는 증가하지만 비통상적 정치참여는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비통상적 정치참여의 경우 기존 정부의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견을 드러내기 원하므로 비통상적·비합법적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숙종·유희정(2010)은 정부신뢰가 정당활동, 집회, 시위 등을 제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치상황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할수록 상황을 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이혜인·홍준형 2013).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신뢰 가운데서도 국회, 청와대, 중앙정부 등과 같이 정책과정에 있어 보다 체감도가 높은 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공적신뢰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어떤 상관관계를 주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 역시 정부의 범위를 규정할 때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까지 포함하는 것은 시민들이 의회에 가지는 불만족이나 불신이 확대되어 정치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Hetherington 1998; Williams 1985).

3) 네트워크와 정치참여

자발적 결사체 역시 사회자본의 주요한 요소이면서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모임을 결성하는 것은 사회자본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상호작용이 공동체를 구성·유지하도록 하면서 정보가 유통된다(구혜정 2002). 부르디외(Bourdieu 1986)나 콜먼(Coleman 1998)은 사회자본이 사회 네트워크, 혹은 구성원 간 관계로 인해 각각의 행위자들이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본 한편 퍼트남(Putnam 2000)은 지역사회나 국가 전체가 갖는 집합적 성격의 자원으로 보았다. 자발적 모임은 사회전체로 보았을 때 네트워크가 되어 신뢰의 미시적 기반이 된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개인이 사회자본을 통해 획득하는 이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한상미 2007).

사회적 연계(social network)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기초로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 어떠한 행위 결과를 가져오는가가 연구자들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왔다. 퍼트남(Putnam 1993)은 시민조직이 사회정치적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다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모임이나 지역 사회의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내부의 신뢰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민주적 사회라는 성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즉, 퍼트남(Putnam 2000)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발적 모임은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규범을 형성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토크빌(Tocqueville 1969) 역시 미국 사회 민주주의의 주요한 특징으로 자발적 결사체에 속한 삶을 꼽았다. 취미생활, 스포츠클럽, 종교단체 등과 같은 다양한 결사체에 참여하는 것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제나 공공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토론, 관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증대하게 되는 것이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모임은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투표와 같은 공식적인 시민참여를 증대한다고 분석된다(Verba and Nie 1972). 크리슈나(Krishna 2002)는 사회자본이 민주주의적 행동에 동참하게 하는 톱니(gear)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로플린(Loflin 2003)은 투표와 같은 제도적 정치 참여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이 정치참여를 긍정적으로 여기게 한다고 주장하였다.레이크와 허펠트(Lake and Huckfeldt 1998)는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의 정치참여와 사회자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네트워크의 전문성이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상호작용 빈도, 네트워크의 규모를 중심으로 대선 캠페인 참여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그 결과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적 전문 지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관여 정도 역시 제고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 역시 증가하였다.

한편 사회자본이 오히려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는 강한 유대(strong ties)를 기반으로 하는 결속집단(bonding group)은 타인에 대한 배타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외연적 확장을 제한하여 영향력 있는 정치적 행위로 전환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Norris 1996). 박희봉 외(2005)의 경우 집단의 종류에 따라 정치참여 영향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집회·시위, 진정서, 온라인 의견 피력, 서명운동과 같은 비제도적·비관습적 정치참여행위를 주장형 정치참여(assertive political participation)라 규정한 이영라·이숙종(2018)의 연구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연대감을 높여주는 사회신뢰가 강할수록, 표출적이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정치참여가 높아짐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신뢰하면 이념갈등에 따른 참여는 줄어들고, 이익 및 가치갈등에 따른 참여는 증가하는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미나 동호회 같은 비정치적 목적의 집단 네트워크가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레이크와 허펠트(Lake and Huckfeldt 1998)가 분석한 바와 같이 개인은 네트워크 안에서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해 전문성과 관심이 제고되고, 그 결과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긍정적 의도가 증가하는

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정치적 목적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공공 문제에 대해 토론과 같은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관심을 유발하고, 또 이 과정에서 비용이 높은 비제도적 정치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 상정하고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보았다.

4) 호혜의 규범과 정치참여

호혜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은 타인에게 어떤 선한 행위를 제공했을 때 이를 돌려받을 것이라는 미래의 기대, 혹은 타인의 선의에 대해 자신도 타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회 규칙을 말한다(송경재 2016).

이러한 호혜 규범은 신뢰에 기반한다. 타인에 대한 호의나 선의가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미래의 기대라는 믿음, 내가 지키고 지지하는 사회의 도덕인식을 타인도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는 신뢰에서 발현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신뢰는 협력의 선순환에 기여하게 된다(한준 2007). 사회의 규칙으로 작동하는 호혜 규범은 시민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도덕의식, 상호신뢰, 관용, 준법정신 등과 같은 시민의식이나 태도를 시민적 태도(civic attitude)로 정의하면서 자발적 결사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좋은 시민(good citizen)의 자질이 되고 결국 민주주의의 선순환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도묘연 2017). 즉 사회적 네트워크와 조직의 참여 속에서 규범과 그에 대한 준수 인식이 제고되고, 타인과 정보를 교환하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호혜 규범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신뢰나 관용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특정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가 아니라 잘 모르는 타인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신뢰(generalized trust)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태도이다. 이는 자신과 다른 가치관이나 세계관, 신념 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규범적 태도라 할 수 있다.

호혜 규범에 대한 사회자본 측면의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사회자본을 복수의 개인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비공식적 규범이며, 이러한 규범은 사회자본의 가장 근간이 된다고 보았다. 콜먼(Coleman 1998)은 사회자본의 주요 요소로 상호부조의 규범을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호혜

성과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을 촉진하기도 하며, 비도덕적행위나 범죄에 대한 제어, 공동체의 전체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억제 등의 역할을 의미한다. 퍼트넘(Putnum 1993) 역시 호혜성과 시민성에 기반한 사회는 신뢰사회로 불신이 팽배한 사회보다 효율적이며, 이러한 호혜규범은 시민참여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보다 단단해진다고 보았다. 포르테스(Portes 1998)는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해 네트워크 안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시민성이나 규범, 신뢰 등을 사회자본이라고 분석하였다. 퍼트넘(Putnum 1993)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임과 상호작용, 즉 네트워크가 일반적 호혜규범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소통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신뢰가 축적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는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과 신뢰를 증진하고 개인의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Giddens 1990). 즉, 자발적 모임과 네트워크의 형성이 정치참여 등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며, 정치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관련 지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행동지침의 준거가 되기도 하며 이러한 행동지침이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영수·이재신 2009).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결사체나 모임 활동과 같은 참여가 증대되면 유의미한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와의 선순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Almond and Verba 1965; Putnum 2000). 자발적 모임이나 지역사회의 공동체 등과 같은 시민사회가 강한 사회일수록 시민성(socialization function)이 증가하고, 집단 내의 공동체 민주적 기능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Putnum 2000). 퍼트넘(Putnum 2000)에 따르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참여 네트워크(networks of civic engagement)는 이 자체로 사회자본이면서 신뢰나 호혜규범을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신뢰의 형성은 타인에 대한 호혜나 배려, 차이에의 존중과 같은 시민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는데, 이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 중요도’ 등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존중’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송경재 2013). 김형철(2017)은 이러한 호혜성이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참여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동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를 제도적 비제도적 행위에 구분하지 않고 호혜성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호혜규범의 측정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많은 연구들이 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 타인에 대한 도움,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 우선 정도, 준법정신, 공공질

서 등으로 측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정치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혜규범을 타인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관용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시민성으로서의 호혜규범이 자신과 취향이나 개성이 다르더라도 이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면서 공동체에서의 포용과 연대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SNS, 사회자본, 정치참여

정치참여에 미디어나 포털 사이트, 개인의 온라인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관계망을 중심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이용의 증가와 이러한 개인의 행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도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들의 정치참여 행위는 선거와 투표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최지향 2016), 시위나 집회와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참여로 한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네트워크나 활동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획득을 위한 비용의 감소와 참여 비용을 줄여 정치 참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박영득·이재묵 2017). 이러한 논의가 SNS의 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역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온라인과 사회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엘리스, 스텐필드와 램프(Ellison, Steinfield and Lampe 2007)는 페이스북과 같은 공간을 새로운 형태의 사회자본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온라인 볼링(bowling online)’이라 표현한 바 있다. 반면 퍼트넘(Putnam 2000)이 언급한 바와 같이 TV와 마찬가지로 오락적 요소를 가진 온라인 공간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해체, 시민사회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나이(Nie 2001) 역시 인터넷 이용의 증가는 오프라인에서의 대면적 관계 시간을 감소시켜, 사회자본의 감소를 불러온다고 하였다. 크라우트 외(Kraut et al. 1998)도 미국에서 인터넷이 사회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글래드웰(Gladwell 2010)은 SNS의 관계는 피상적 약한 유대(weak ties)로 대의를 위해 희생하거나 거리 시위와 같은 고위험 행동주의(high-risk activism)로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SNS가

동기부여의 수준을 낮추어 참여를 독려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다.

정치참여와 SNS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는 SNS의 이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강진숙·김지연(2013)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동원 효과가 투표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김은이(2013)는 SNS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이 많을수록 타인과 정치관련 대화가 증가하고 이는 정치적 효능감을 증가시켜 결국 정치참여 행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조진만(2011)의 경우 한국에서의 SNS이용이 온라인 정치참여는 물론 오프라인 정치참여(항의, 집회, 투표설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즉, 정보를 획득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도구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 정치참여를 추동한다는 것이다(Valenzuela et al. 2012).

이렇듯 다양한 연구들은 SNS가 이용자가 정치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일상적 정치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정치관련 정보의 잦은 접촉은 더 활발한 정치참여와 적극적 의사표현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주장한다(Gil de Zúñiga, Molyneux and Zheng 2014).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의제에 대한 상호작용은 오프라인에 비해 시간적, 심리적, 물리적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Lev-On and Manin 2009). 또한 SNS는 동시적(synchronous) 또는 비동시적(asynchronous)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의견 교환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에 비해 정치토론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이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제시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정치적 지식이 많은 사람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정치적·정책적 의사결정에서의 홍보나 의견수렴의 역할도 가능하다(Heald 2011). 이러한 상호작용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NS의 이용은 특히 비제도적 정치참여 과정에서 동원효과를 형성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조희정(2011)은 2011년 중동의 시민혁명 사례를 통해 동시적 의견교환과 광범위한 상호작용을 통해 증폭되는 과정을 연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송경재(2014)의 경우 미국 SNS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의 정치참여를 비교분석한 연구를 통해 SNS 이용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선거적 정치 참여, 특히 항의형 정치참여에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SNS와 일반적 인터넷 매체와의 차이는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SNS는 정보의 공유와 확산은 물론 사회적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강한 유대(strong ties)로 발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의 특성은 비선거적 정치참여를 자극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희정 2011). 사람들은 SNS에서 공공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언론 기사의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도 가능하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인 SNS는 관계의 긴밀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최지향, 2016). 개인이 하는 행위와 달리 집단적 행위 즉, 집회나 시위 같은 정치 참여에서 보다 긴밀한 SNS 네트워크의 메시지가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동원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의 정치참여를 위해 동료를 물색하고, 자신의 의견을 확산하고자 하고, 유사한 의견을 가진 동료시민을 확인하는 것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행위의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박영득·이재묵 2017). 유사한 맥락에서 정재관(2013)의 연구는 인터넷 매체의 이용이 선거 참여와 같은 행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콧 운동과 같은 정치행위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 연구는 인터넷 이용과 사회자본의 형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정치참여로 이어지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정재관 2013).

SNS는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뉴스의 플랫폼이기도 하면서 공공문제가 공유되는 공공공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조화순 2012). 따라서 이들 사이의 의견교환과 정보전달은 오프라인 여론형성과 적극적 정치참여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분석된다(김수정·정연구 2017). 즉, 선거와 같은 규범성이 강한 정치 참여에 비해 비제도적 정치 참여는 더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소통의 자발성과 관계성이라는 SNS 매체의 특징은 정치참여 행위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과정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행위에 옮기는 과정에서 SNS의 역할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소통과 자발성, 관계성의 특징을 갖는 SNS가 오프라인의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즉,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양이나 음의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이나 의견교환, 상호작용이 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인식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가설 1-1: 정부에 대한 신뢰는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네트워크는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3: 호혜는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1: 정부에 대한 신뢰는 SNS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2: 네트워크는 SNS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3: 호혜는 SNS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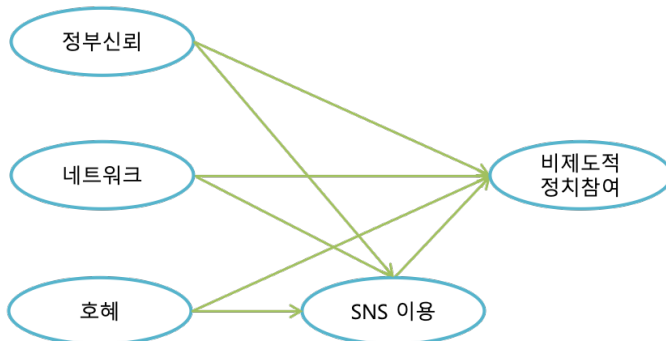
가설 3-1: SNS 이용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1: SNS 이용은 정부신뢰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2: SNS 이용은 네트워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3: SNS 이용은 호혜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2016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이용하였다. 개인의 소속집단, 타인에 대한 호혜, 신뢰정도를 비롯하여 정치참여 행위와 SNS 매체별 이용정도 등의 조사가 실시된 2016년의 자료는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관계 및 SNS 이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



<그림 1> 연구모형

〈표 1〉 변수의 구성

변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측정척도
종속변수	비제도적 정치참여	진정서 서명	1~4
		시위참가	
		정치집회 참가	
독립변수	정부신뢰	중앙정부부처	1~3
		국회	
		청와대	
	네트워크	사회봉사	1~4
		여가모임	
		친목모임	
	호혜	개인 개성 존중	1~7
		취향이 다른 사람 수용	
매개변수	SNS 이용	온라인동호회 게시판 이용빈도	1~5
		페이스북 이용빈도	
		카카오톡 이용빈도	

되었다.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의 변수와 척도를 정리한 것이다.

종속변수인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는 각각 ‘전에도 안했고 앞으로도 안할 것이다’부터 ‘지난 1년 이내에 한 적이 있다’까지 4점 척도이다. 독립변수 정부신뢰는 ‘전혀 신뢰하지 않음’부터 ‘매우 신뢰’의 3점 척도, 네트워크 소속집단의 경우 ‘소속된 적 없다’부터 ‘소속되어 있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까지 4점 척도, 호혜인 개인 개성에 대한 존중과 취향이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 정도는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부터 ‘잘 받아들인다’까지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매개변수 SNS 이용의 경우 ‘전혀 안 한다’부터 ‘거의 매일 이용’까지 5점 척도이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수집된 데이터는 1051개이며 18세~99세까지 여성 45.2%, 남성 51.78%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분포는 다음의 <표 2>과 같으며 측정된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3>과 같다.

2. 요인분석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5개로 추출되었다.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Kaiser-Meyer-Olkin 측도는 0.705로 0.5보다 높았으며, 유의확률 .000으로 1%유의확률을 만족하였다.

<표 2>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학력(%)	
남성	45.2	18~19세	1.5	무학	4.7
		20~29세	17.0	초등(국민)학교	12.7
		30~39세	17.0	중학교	6.9
		40~49세	16.0	고등학교	24.6
여성	54.8	50~59세	16.7	전문대학(2·3년제)	10.8
		60~69세	13.9	대학교(4년제)	32.9
		70~79세	12.1	대학원(석사과정)	6.1
		80~89세	5.4	대학원(박사과정)	1.3
		90세~	0.6	서당한학	.1

〈표 3〉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분산
정부신뢰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신뢰	1	3	1.60	.602	.362
	국회에 대한 신뢰	1	3	1.33	.554	.307
	청와대에 대한 신뢰	1	3	1.64	.672	.452
네트워크	사회봉사클럽	1	4	1.38	.798	.636
	친목모임, 동창모임, 향우회	1	4	2.27	1.219	1.487
	여가모임	1	4	1.83	1.155	1.333
호혜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 수용	1	7	4.52	1.599	2.558
	개인의 개성에 대한 존중	1	7	4.85	1.499	2.248
SNS 이용	인터넷동호회게시판 이용빈도	1	5	2.10	1.498	2.245
	카카오톡 이용빈도	1	5	4.86	.559	.312
	페이스북 이용빈도	1	5	2.41	1.636	2.675
비제도적 정치참여	진정서서명	1	4	2.13	1.111	1.235
	시위참가	1	4	1.57	.806	.650
	정치집회참가	1	4	1.48	.746	.557

〈표 4〉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성분					Cronbach's α
		1	2	3	4	5	
비제도적 정치참여	정치집회참가	.882					.751
	시위참가	.873					
	진정서서명	.673					
정부신뢰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신뢰		.834				.753
	청와대에 대한 신뢰		.825				
	국회에 대한 신뢰		.786				
네트워크	소속집단: 친목모임, 동창모임, 향우회			.812			.620
	소속집단: 여가모임			.777			
	소속집단: 사회봉사 클럽			.600			
호혜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 수용				.767		.523
	개인의 개성에 대한 존중				.720		
SNS 이용	페이스북 이용빈도					.612	.589
	카카오톡 이용빈도					.678	
	인터넷동호회-게시판 이용빈도					.572	
고유값		2.809	1.969	1.259	1.159	1.082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3. 구조모형분석

1) 경로간 유의성

본 연구는 AMOS 7.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경로 분석은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또는 공분산, 인과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며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하나의 경로로 묶어 모형을 구축하게 되는 분석이다(오을임 외 2001). AMOS 분석이 제공하는 다양한 가설 모형의 적합도 평가척도 중에 본 연구에서는 모수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우도측정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E)을 사용하였다.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 경로 유의성은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모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사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모델 적합도

모형적합도를 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5>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의 유의성 검증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P
정부신뢰	→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신뢰	1.000			
	→	국회에 대한 신뢰	.690	.038	18.081	***
	→	청와대에 대한 신뢰	1.000			
네트워크	→	사회봉사클럽	.502	.047	10.785	***
	→	친목모임, 동창모임, 향우회	1.110	.094	11.837	***
	→	여가모임	1.000			
호혜	→	나와 취향이 다른 사람 수용	1.000			
	→	개인의 개성에 대한 존중	1.598	.427	3.743	***
SNS이용	→	인터넷동호회게시판 이용빈도	3.353	1.192	2.810	**
	→	카카오톡 이용빈도	1.000			
	→	페이스북 이용빈도	4.421	1.574	2.810	**
비제도적 정치참여	→	진정서서명	1.000			
	→	시위참가	1.127	.066	17.136	***
	→	정치집회참가	.990	.057	17.282	***

〈표 6〉 모델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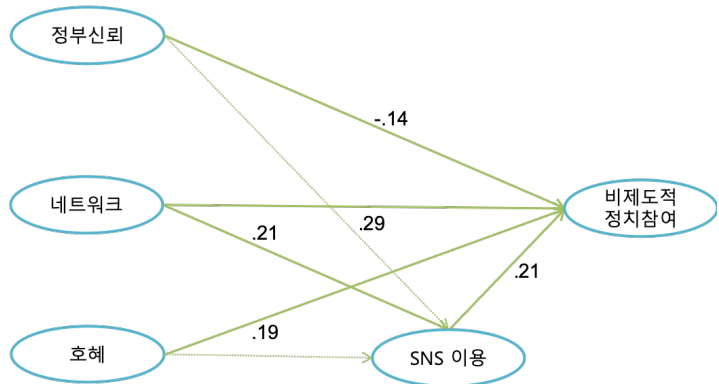
적합도 지수		적합도 기준	모델의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P-value		.000
	χ^2	-	128.169
	df	-	68
	χ^2/df	3.84 이하	1.885
	GFI	0.9 이상	.983
	RMSEA	0.05 이하	.034
	RMR	0.05 이하	.029
간명적합지수	AGFI	0.9이상	.974
증분적합지수	IFI Delta2	0.9이상	.976
	TLI rho2	0.9이상	.968
	NFI Delta1	0.9이상	.951
	RFI rho1	0.9이상	.934
	CFI	0.9이상	.976

본 연구에서는 절대부합지수, 증분부합지수, 간명부합지수의 다양한 지수를 통해 모형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절대부합지수는 유의수준(p), χ^2/df , GFI(Goodness-of-fit 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로 간명적합지수는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를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증분부합지수는 IFI(Incremental Fit Index) Delta2, TLI(Tucker-Lewis Index) rho2, NFI((Normed Fit Index) Delta1,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해 볼 때, 본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연구모형 분석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사이의 분석 결과는 〈표 7〉 및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요인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값이다.

분석결과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사회자본 세 가지 요소 모두 영향을 주는 것



〈그림 2〉 비제도적 정치참여 영향요인 연구모형 분석 결과

〈표 7〉 비제도적 정치참여 영향요인 연구모형 분석 결과

	Estimate	S.E	C.R.	P	Standardized Estimate
정부신뢰→비제도적 정치참여	-.174	.052	-3.350	***	-.136
네트워크→비제도적 정치참여	.241	.048	4.992	***	.293
호혜→비제도적 정치참여	.222	.080	2.784	**	.193
정부신뢰→SNS이용	-.040	.022	-1.776	0.076	-.144
네트워크→SNS이용	.038	.019	1.960	*	.213
호혜→SNS이용	-.010	.029	-.343	.732	-.041
SNS이용→비제도적 정치참여	1.001	.442	2.262	**	.215

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정치 집회나 진정서 서명과 같은 정치참여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친목모임, 여가모임 등의 집단에 소속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람들과 타인의 취향이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호혜의 규범을 가진 사람들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긍정적이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 이용에는 모임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정부신뢰나 호혜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SNS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은 요인 간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표 8〉 SNS의 매개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네트워크 → SNS 이용 → 비제도적 정치참여	.339	.293	.046

〈표 9〉 연구가설의 채택여부

번호	가설	채택 여부
1-1	정부에 대한 신뢰는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1-2	네트워크는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1-3	호혜는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2-1	정부에 대한 신뢰는 SNS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2-2	네트워크는 SNS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2-3	호혜는 SNS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3-1	SNS 이용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4-1	SNS 이용은 정부신뢰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4-2	SNS 이용은 네트워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4-3	SNS 이용은 호혜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전체적인 영향력은 인과효과(casual effect)로 파악할 수 있다. 인과효과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구분되며, 직접효과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간접효과는 두 변수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다(배병렬 2007). 네트워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한 SNS 이용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는 다음 〈표 8〉와 같다. 이를 토대로 한 연구가설의 채택여부는 〈표 9〉과 같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비제도적 정치참여행위에 대한 정부신뢰, 네트워크, 호혜와 같은 사회자본의 영향을 알아보고 온라인 공간의 SNS 이용이 오프라인의 정치참여 행위

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는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며,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다. 정치집회나 시위참가의 행위는 투표와 달리 규범적 성격이 덜하며, 높은 비용과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정책 요구를 위해 시위와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이면서 조직적 연대감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가 탐색한 사회자본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신뢰, 네트워크, 호혜의 사회자본은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모두 영향을 주었다. 정부신뢰는 음의 영향을 네트워크와 호혜는 양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우선 국회, 청와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부정적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바와 같이 정부 신뢰가 높으면 투표와 같은 제도적, 규범적 정치참여에는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행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한다. 정치적 이슈나 정책 문제에 대한 갈등이 사회적 비용의 소모나 반목으로 인한 불신뢰 사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정책의 결정과정이나 집행에서 정부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이숙종·유희정 2015). 즉, 정부신뢰는 시민과 정부사이의 협력을 증진시켜 거버넌스와 정부의 효과성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Evans 1996).

하지만 이러한 비제도적 정치참여행위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항의적이고 비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폭력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자신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박찬욱 2005)이면서 정부의 책무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한다(허석재 2015). 노리스(Norris 2002)역시 민주주의가 안정된 사회에서 정치적 항의나 시위, 탄원서와 같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빈도가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경험은 시민들의 정치관심 제고와 민주주의적 가치의 학습효과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이지호 외 2017).

반면 네트워크나 호혜는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우선 친목모임, 봉사단체, 여가모임 등에 소속되어 자주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정치참여

행위에 적극적이었다. 사람들은 소속 집단에 대한 연대감, 사회적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 토론과 상호작용 등을 반복하게 되면 다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강한 연대의식으로 발전하는데(김형철 2017), 이렇게 형성된 신뢰와 연대는 특정 정책사안이나 정치이슈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표출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참여에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대한 비용이나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소속집단 네트워크가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갈등의 표출과 조직화를 권리로 인정하고, 복수의 갈등 조직자들이 합법적으로 갈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갈등이 갖는 분열적 효과를 제어하는 것이 민주주의(박상훈 2012)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드러내는 과정 자체를 부정적이라 볼 수 없다. 이를 소속집단의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역할을 한다면 자발적 결사체와 네트워크라는 사회자본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개성이나 취향에 대한 존중은 일반적으로 호혜규범으로 작동한다. 김형철(2017)은 호혜성이 강할수록 정치적 효능감, 정치 참여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과 호혜성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연대성과 호혜성이 정치참여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인정과 같은 호혜의 시민의식이 정치참여와 양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동체의 상호작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와 같은 시민성의 태도가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SNS 이용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정부신뢰나 호혜규범은 SNS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소속집단 네트워크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취미활동, 동창모임, 사회봉사단체 활동과 같은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SNS 이용이 활발했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활동은 오프라인의 비제도적 정치행위 참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과 정치참여 행위와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오프라인 동원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Lake and Huckfeldt 1998)과 정치 이슈에 대한 원활한 토론을 통해 참여의 문턱을 낮춘다는 연구가 동시에 존재한다(Gustafsson 2012; 박영득·이재묵 2017).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SNS 이용은 정치참여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 토론이나 전문적 지식 습득에 용이하며,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의견교환과 상호작용을 통해 비제도적 정치참여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준

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소속집단 네트워크는 SNS 이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목 등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은 SNS 이용을 통해 보다 일상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프라인의 정치적, 비제도적 행위로도 연결되도록 하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SNS가 원활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정치 참여의 장벽을 낮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SNS 이용의 역할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TV와 달리 SNS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가 탐색한 바에 의하면 온라인 상호작용은 오프라인에서의 비제도적 정치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정치 이슈에 대한 전문지식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반복한다는 SNS의 특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비용, 시간, 장소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공공문제와 주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SNS가 기능함으로써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NS의 등장은 정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채널의 다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전진오 외 2019). 시민들은 서로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타인에게 자신의 사회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Xenos et al. 2014). 즉, SNS의 이용은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크기가 확장되고 정치적 상호작용은 물론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판단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정치참여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탐색한 SNS의 효과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안에서의 다양한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은 기존에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을 제고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김강훈·박상현 2011)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SNS를 통해 타인과 토론하는 과정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되며, 기존 언론에 의해 주어지는 정치의제가 아닌 의견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치행위로 발전하고 확산되는 것이다. 공공문제에 관망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자각과 시민성의 확립과정에 SNS가 매우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SNS의 적극적 이용은 정치지식의 습득과 정치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며(양승찬 외 2019),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 행위인 비제도적 정치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정치참여행위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에 비해 페이스북, 카카오톡,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 등의 활동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사회자본은 정부신뢰, 소속집단 네트워크, 타인에 대한 호혜 규범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향과 SNS활동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것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SNS 이용 활성화가 정치적 참여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이한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있어 정치참여행위로의 경로에서 사회자본의 형태별로 나누어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별 행위가 오프라인의 정치적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연구한 것으로 향후 보다 추가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2016년에 작성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2016년 한국의 역동적 정치상황과 이후의 정치구조 변화, 시민의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후의 자료를 통해 추가 연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필터버블(filter bubble)과 같은 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에 따른 특정정보 편식에 대한 영향 역시 면밀하게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동호회 게시판을 넘어 최근 이용자가 증가한 유튜브(Youtube)와 같은 새로운 온라인 상호작용 플랫폼과 사회자본, 정치참여 행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추가된다면 온라인 활동이 매개역할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20년 1월 8일

심사일: 2020년 1월 31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12일

참고문헌

- 강진숙·김지연. 2013. “SNS 이용자의 정치참여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79-199.
- 구혜정. 2002.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강훈·박상현. 2011. “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디지털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참

- 여 형태 연구.”『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2권 3호. 47-66.
- 김대욱·이승중. 2008.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권 4호. 43-62.
- 김민정·박성민. 2013.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가 공직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국정관리연구』 8권 2호. 27-53.
- 김수정·정연구. 2017. “정치성향, 뉴스 미디어 이용, 정치대화가 정치참여 태도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한국언론학보』 61권 5호. 69-101.
- 김은이. 2013. “온라인과 SNS 사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대인간 대화와 정치 효능감을 매개 변수로.”『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31권. 31-62.
- 김형철. 2017. “86세대의 집단 간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정체성 비교-학생운동 활동을 중심으로.”『기억과 전망』. 37권. 15-51.
- 도묘연. 2017.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구조.”『현대정치연구』, 10권 2호. 5-41.
- 류태건. 2011. “정치참여, 정치효능, 정치신뢰.”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45-248.
- 박상훈. 2012.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황해문화』. 74권. 12-32.
- 박영득·이재묵. 2017. “SNS활용과 정치참여.”『연구방법논총』. 2권 1호. 1-22.
-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한국정치연구』. 14권 1호. 147-193.
- 박희봉·이희창·김종래·유재원·한인희·차일근·김철수·박병래. 2005. “사회자본과 정치참여:한중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한국정책과학회보』. 9권 5호. 547-575.
- 배병렬. 2007.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관습적·비관습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한국정당학회보』. 12권 2호. 224-227.
- _____. 2014.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과 사회적 자본.”『아태연구』 21권 4호. 241-272.
- _____. 2016.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성 정치의식과 투표참여 그리고 효능감.”『아시아여성연구』. 55권 2호. 119-148.
- _____. 2017.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networked citizen)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시민사회와 NGO』. 15권 2호. 35-70.
- 양승찬·이미나·신지희. 2019. “뉴스미디어 이용과 인터넷토론효능감이 선거 과정 온

- 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커뮤니케이션 이론』 15권 1호. 57-90.
- 유민이·문상호·이숙중. 2012.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영향: 시민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비교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1권 4호. 116-118.
- 윤종빈·김소정. 2019.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사회과학연구』 27권 1호. 8-36.
- 이숙중·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한국정치학회보』 44권 4호. 287-313.
- 이영라·이숙중. 2018.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행정논총』 56권 2호. 159-190.
- 이영수·이재신. 2009.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기대감이 정치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언론학보』 53권 5호. 316-339.
- 이지호·이현우·서복경. 2017. 『탄핵광장의 안과 밖: 촛불민심 경험분석』. 서울: 책담.
- 이혜인·홍준형. 2013. “정부신뢰와 시민참여.”『한국행정논집』 25권 3호. 791-822.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한국정치학회보』 36권 1호. 87-112.
- 전진오·김선우·김형지·Xiong Shuangling·김성태. 2019. “소셜미디어 이용이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평화연구』 27권 1호. 169-205.
- 정재관. 2013. “정보통신기술 혁명은 위기의 대의 민주주의를 구할 것인가?.”『국제관계연구』 18권 2호. 137-164.
- 조진만. 2011. “정보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경험적 분석.”『한국정치학회보』 45권 5호. 273-296.
- 조화순. 2012. “SNS와 정당정치 변화.”『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7-46.
- 조희정. 2011. “2011년 중동의 시민혁명과 SNS의 정치적 매개역할.”『한국정치연구』 20권 2호. 309-338.
- 최지향. 2016. “SNS 이용과 정치참여.”『한국언론학보』 60권 5호. 123-144.
- 최창호. 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한준. 2007. “사회적 자본의 국제비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업과 인력개발』 10권 3호. 14-21.
- 한상미. 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허석재. 2015. “소득 불평등과 정치참여의 양식.”『한국정당학회보』 14권 3호. 41-67.
-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1965. *The Civic Cultur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Barnes, Samuel H., Max Kaase et al.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s) John G. Richardson, New York: Greenwood Press, 1986. 241-258.
- Coleman, J. S. 199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usack, T.R. 1997. *Social Capital,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Democratic Performance: A Comparative Study of German Local Governments*. Berlin.
- Deutsch. M. 1958. "Trust and Suspicion."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 265-279.
- Diamond, L.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llison Nicole, B., Charles, S., and Cliff, L.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1168.
- Evans, Peter.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24(6). 1119-1132.
- Fukuyama, F. 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74. 89-103.
- Gambetta. D. 1998.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 of modern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il de Zúñiga, H., Molyneux, L., and Zheng, P. 2014. "Social media, political expression, and participation: Panel analysis of lagged and concur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Communication*, 64(4). 612-634.
- Gladwell, Malcom, 2010, "Small change: Why the revolution will not be tweeted." *The New Yorker* October. 42-49.
- Gustafsson, N. 2012. "The subtle nature of Facebook politics: Swedish social network sit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New Media & Society*, 14(7). 1111-1127.
- Heald, E. 2011. "Top trends to watch in 2011." World Editors Forum. Retrieved from http://www/01/top_trends_to_watch_in_2011.php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untington, Samuel P. and Joan M. Nelson.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S. E. 2005. "The Role of Trust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An Intergrative Model." *Administration & Society*. 37(5). 611-635.
- Kraut, Robert, Patterson, Michael, Lundmark, Vicki, Kiesler, Sara, Mukopadhyay, Tridas, and Scherlis, William.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Krishna, A. 2002. "Enha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mocracies: What is the role of social capital?."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4). 437-460.
- Lake, R., and Huckfeldt, R. 1998.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Psychology*, 19(3). 567-584.
- Lev-On, A., and Manin, B. 2009. *Happy accidents: Deliberation and online exposure to opposing views*. In T. Davies, & S. P. Gangadharan (Eds.), *Online Deliberation: Design, Research, and Practice* (pp. 105-122). Stanford University: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 Loflin, K. T. 2003.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and Their Relationship to Community and Political Civic Engagement*. A Dissertation of University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Muller, Edward N. 1982. "An explanatory model for differing types of participatio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0. 1-16.
- Nie, Norman H. 2001. "Soci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 Internet: Reconciling Conflicting Finding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20-435.
- Norris, Pippa. 1996. "Does television erode social capital? A reply to Putnam."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93. 474-480.
-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Cambridge:
- Ostrom, Elinor and T. K. Ahn. 2003. *Introduction. in Foundation of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11-39.
- Paxton, Pamela.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u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

Rousseau, Denise M., Sim B. Sitkin, Ronard S. Burt and Colin Camerer.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23(3). 393-404.

Tocqueville, A. 1969.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Anchor Books.

Valenzuela, S., Arriagada, A., and Scherman, A. 2012. "The Social Media Basis of Youth Protest Behavior: The Case of Chile." *Journal of Communication*, 62(2). 299-314.

Verba, S., Schlozman, K. L., and Brady, H.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Verba, Sidney. Norman H. Nie and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llman, Berry. 2001. "Physical Place and Cyberspace: The Rise of Personalized Networks." *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2). 227-252.

Williams, J. T. 1985. "Systematic Influences of Political Trust: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Performance." *Political Methodology*. 11. 125-142.

Xenos, M., Vromen, A., and Loader, B. D. 2014. "The great equalizer? Patterns of social media use and youth political engagement in three advanced democrac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7(2). 151-167.

ABSTRACT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NS Usage

Eun Joo Kang | Sungkyunkwan University

Sook Jong Lee |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signing petition, attending political gatherings, and joining street protests. Social capital was operated by its three components of trust in government, network, and reciprocity. Considering the rising significance of SNS as political communication tools, how the SNS usage mediates the social capital influence upon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was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 trust and reciprocity norms discouraged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while more affiliated network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Namely, as many studies have revealed, people who trust their government are not participating much in petition signing and protests than people who trust their government. Reciprocity norms were not significant for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People with more affiliated networks tend to participate in non-institutional political actions and these people also use more SNS. The SNS usag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NS usage had a mediating role only in the case of relations between affiliated networks and non-institu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people who are engaging with others through off-line membership and on-line communication are more prone for critical political participation.

Keywords: social capital, trust in government, networks, reciprocity norms, political participation, SNS

